

10월 5일
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동정

동정녀 공통 690면, 또는 성인 성녀 공통 700면.

제1독서 <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.>

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. 3,14-19

형제 여러분, ¹⁴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.

¹⁵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.

¹⁶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
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,

¹⁷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

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,

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.

¹⁸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

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,

¹⁹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.

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

화답송 시편 103(102),1-2.3-4.8-9.13-14.17-18ㄱ(◎ 1ㄱ)

◎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또는

◎ 알렐루야.

○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내 안의 모든 것도 기록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.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. ◎

○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

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.

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

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

◎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또는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
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.

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
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. ◎

○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
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.

우리의 됴됨이를 익히 아시고
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시네. ◎

○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
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고
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손손
그분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르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1,28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
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.
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음 <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.>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1,25-30

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

“아버지, 하늘과 땅의 주님,
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
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,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

26 그렇습니다, 아버지!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.”

- 27 “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.
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.
또 아들 외에는,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
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.
-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.
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.
-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.
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.
-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.”
주님의 말씀입니다.

* 이 전례문은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(2020년 11월 4일, 경신성사성, Prot. N. 520/20)을 받았습니다.